

三姓神話의 神話學的 考察

許 南 春*

目 次

- | |
|---------------|
| I. 序 |
| II. 三神人과 從地湧出 |
| III. 渡來 |
| IV. 穀母 |
| V. 結 |

I. 序

三姓神話는 일본·유구 등의 南方系 신화와의 다양한 비교·고찰을 통해 傳播論的 系統과 형성과정, 그리고 문화 배경 등이 자세히 고찰된 바 있다." 그런데 三姓神話는 北方系 신화와의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문화 발전 단계나 건국신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주의 삶과 한반도의 사회·역사적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란 점이다.

사실 고구려·신라·가야의 신화와 三姓神話는 모티프의 유사성을 다수 발견할 수 있어 그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간 소외되었던 탐라의 건국신화를 한반도의 건국신화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편입시키고, 고구려·신라·백제·가야의 4국 신화에 탐라의 건국신화를 넣어 단군조선 이래 한반도에 존재한 5국의 건국신화를 설정,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1) 玄容駿, 「三姓神話研究」, 「耽羅文化」 제2호, 탐라문화연구원, 1983.

이다.

백제의 始祖 온조왕은 고구려의 혈통과 관련됨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 건국신화는 고구려계의 신화와 동일 계통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초기의 화려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역사적 침체로 그 신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백제신화는 그 자료의 한계를 드러내며 논의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했다. 耽羅國도 백제에 복속되는 A. D. 5C(文周王 2년, 476년) 이후 부족국가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되고 그 신화도 빛을 잃게 된 듯하다. 그러나 고려 중엽까지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고 하니 탐라 건국신화는 신성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초기 『高麗史』에 수록된 三姓神話를 『三國遺事』所載의 건국신화와 함께 신화학적으로 고찰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II. 三神人 從地湧出

1. 三人類型

우리나라에서 고구려와 신라를 세운 주몽·박혁거세는 단일 개국 始祖의 형태를 보여 주고, 백제의 온조·비류는 2인 개국 始祖의 형태, 수로를 비롯한 6童子의 출현은 여섯 가야의 6인 개국 始祖의 형태를 보여 준다. 물론 6가야의 신화는 부족국가 형태의 것으로, 수로신화는 6가야를 대표하는 단일 개국 始祖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탐라의 高·良·夫 3신인은 3인 개국 始祖의 형태를 보여 준다. 일본신화에서도 이처럼 3신 天照大神·月弓尊·素盞鳴尊의 개국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三神開國 형태는 고대 전제국가의 시기를 맞아 단일 開國始祖의 형태로 변화한 것도 있었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신라의 왕통이 朴·昔·金 세 성씨에 의해 交立된 것도 三神開國의 변형인 듯하다. 한편 단군신화의 風伯·雨師·雲師의 3인은 단군을 보좌하는 계층이며, 주몽신화의 烏伊·摩離·陝父의 3인은 부여에서 주몽과 함께 탈출하고 후에 왕위에 오

三姓神話의 神話學的 考察

르는 일을 보필하며,²⁾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도 그를 보좌하는 屋智·句鄒·都祖 등 3인과 동행한다.³⁾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에 보이는 개국 보좌의 '三人類型'은 탐라의 '三神開國'의 형태보다 후대형인 듯하며, 이들은 신화적 주인공이 국가를 창건하는 데 보좌하는 제 2계층의 3인인 듯하다.⁴⁾

『長興高氏家乘』에 실린 『瀛洲誌』의 三姓神話を 보면 藏書閣藏의 『瀛洲誌』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는 高·良·夫의 三神人이 각각 君·臣·民의 序次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⁵⁾ 이는 高氏 門中 위주의 기록이라 하겠지만, 三神人이 君·臣·民의 세 신분 범주로 나타난 데에는 각별한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신화학자 뒤메질이 세운 '3기능 체제' 또는 '3부 이데올로기'⁶⁾는 탐라 건국신화의 3神人 출현과 그들이 담당한 기능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어족(인도유럽어족)이 유라시아 스텝지역 서반부 어딘가 위치해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원거주지'에 살면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시대에 이미 사회가 '(1) 祭祀 = 주권자, (2) 戰士 = 지배자, (3) 食糧생산자 = 서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신분에 의해서 망라적으로 구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 인도유럽어족은 이 3기능 체제의 틀을 그들이 존숭하는 신들의 분류에도 적용시켜 인간 사회에 세 가지 종류의 기능을 분담하는 신분의 구별이 있는 것에 대응하여, 신들도 세 종류의 기능신으로 類別된다고 여겨왔다.⁷⁾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재사를 담당하는 주권자를 제 1기능, 戰士를 담당하

- 2) 烏伊摩離陝父三人爲友(『三國遺事』, 高句麗 ; 『三國史記』, 始祖東明聖王) 暗結三賢友 其人共多智 烏伊摩離陝父等三人(『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 3) 得一斷劍 遂持之與屋智句鄒都祖等三人 行至卒本(『三國史記』, 琉璃王)
- 4) 이 章의 논의는 崔珍源 교수의 『韓國神話考釋(1)』(『大東文化研究』 제23집, 대동문화연구원, 1989)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
- 5) 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長 以良爲臣 以夫爲民
- 6) Georges Dumézil, *Myth et épopée I. L'idéologie des trois fonctions dans les peuples indo-européens*, Editions Gallimard, Paris, 1968.
- 7) 全圭泰, 『韓國神話와 原初意識』, 二友出版社, 1980, pp. 44~45. 에서 뒤메질의 견해를 요약했다.

는 지배자를 제 2기능, 생산자인 서민을 제 3기능이라 분류하고, 이러한 체제를 그들이 믿는 신의 세계에도 적용시켜 제 1기능의 主權神, 제 2기능의 戰神, 제 3기능의 豊穰神이 존재한다고 관념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인도나 고대 이집트의 Thebes 등에는 존재하였을 것이나 유럽 등지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커크의 비판⁸⁾도 있지만, 제정이 분리되는 고대 국가 건설 초기에 세 신분 범주와 각 기능의 분화 정착을 암시하는 신화가 존재한다는 이론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탐라의 建國主人 3神人은 年次에 따라 결혼하고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게 되는데, 「高麗史」系の 기록에는 良-高-夫의 순서로, 「瀛洲誌」系에는 高-良-夫의 순서로 나타난다.⁹⁾ 한편 위에서 인용한 「長興高氏家乘」에서는 세 사람이 각자 돌을 쏘아 勇力を 시험하여 高氏가 上이 되고, 良氏가 中이 되고, 夫氏가 下가 되었다고 한다.¹⁰⁾ 그래서 高氏가 君이 되고, 良氏가 臣이 되고, 夫氏가 民이 되었다는 것이다. 年次로써 혹은 활을 쏘아 序次를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제주군 성산면 온평리에는 三女神의 도래와 혼인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도 세 신인이 나무 오르기와 활쏘기 등으로 재주를 겨루어 序次를 결정하는 화소가 나타난다.¹¹⁾

나이로써 또는 능력을 시험하여 三神人이 각각의 신분을 결정하고 세상을 運行시키는 데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나누어 맡았다는 문맥으로 이해된다. 3인이 세 범주의 신분으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존귀와 비천의 상징인

8) G. S. Kirk, *Myth: Its Meaning and Functions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 Turtle Co., 1971, p. 210.

9) 三人以年次分娶之…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高麗史」) 三神人…以年次分娶…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瀛洲誌」)

장주근 교수는 梁誠之가 「高麗史」 地理志의 저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 “高·梁·夫의 순서로 되는 경우가 많은 삼성시조의 순서가 여기서(고려사)는 양성지에 의해서 자연 양씨의 족보가 인용되기 쉬워서 梁·高·夫의 순서로 기록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다(「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민족과 문화』I, 정음사, 1988, p. 294).

10) 三人各射石以試勇力 高爲上 良爲中 夫爲下

11)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pp. 62~63.

것은 아니다. 3인은 함께 耽羅國人들에게 숭앙되는 神格의 지위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3인은 각각 제사를 주재하는 주권자로서, 戰士를 담당하는 지배자로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가진 것이고, 건국신화의 주인공으로서의 기능 즉 主權神·戰神·豐饒神으로 숭앙되었을 것이다. 결국 3神人은 인간사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운명을 주재한다거나 富를 내리거나 공동체의 조직에 관여하는) 신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하는 신으로, 인간의 풍요를 지배하는 신으로 숭앙되는 존재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뒤메질의 '3기능 체계'론에서부터 얻어진 수확이다.

2. 地中湧出

한반도 건국신화의 대부분이 天上에서의 하강으로 나타나는데 탐라신화는 지상에서의 湧出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가 화산의 폭발로 생긴 섬이기에 자연 생성의 성격을 신화에 반영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主峯인 한라산이 그들의 탄생지로 신격화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산의 정상에 신의 降臨處이고, 건국주 탄생의 聖地가 됨은 신화의 일반적 문맥이다) 조그만 毛興穴이 三神人의 湧出處로 나타남은 무슨 의미일까.

가야의 首露가 하강하였다는 龜旨峰은 김해의 主峯인 盆城山 정상의 萬丈臺가 아니라 盆城山 西麓 끝에 위치한 나즈막한 언덕이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진원 교수는 "龜旨는 원래 降神場所로서의 위치와 후대 祭儀場所로서의 위치라는 二元的 場所概念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신화를 이루고 있는 중심산의 정상에서 신을 맞이하여 내려와, 그 降神에 따른 의례를 낫은 구릉지대에서 迎神祭儀로써 구체화시키는 것이 신화의 일반적인 문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¹²⁾라고 하여 그 의문점을 풀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主峯인 한라산이 탄생처로서의 위치라면 毛興穴은 降神의 의례를 거행하던 祭儀場所였을 것이다.

三女神과 함께 渡來한 使者는 "우리 왕께서 3녀를 낳으시고 이르길, 서쪽

12) 최진원, 「韓國神話考釋 (2)」, 「大東文化研究」 제24집, 대동문화연구원, 1990, p.69. 필자도 최진원 교수와 동행하여 김해답사를 하고, 二元的 祭儀 장소로서의 견해에 공감하게 되었다.

바다에 있는 산에 神子 3인이 탄강하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며 臣에게 명하여 3녀를 모시고 왔습니다”¹³⁾고 그 도래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瀛洲誌」에는 “中有絕岳 降神子三人”이라 하여 ‘絕岳’ 즉 깎아지른 듯이 험준한 산에 三神人이 탄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의 主峯인 한라산이 降神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毛輿穴은 降神에 따른 의례를 거행하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듯하다.

‘從地湧出’은 대지의 품속에서 생명이 산출된다는 원초적 사유의 반영¹⁴⁾ 즉 대지의 生殖力을 토대로 한 地母神信仰¹⁵⁾이 내재해 있다. 三神人이 地中에서 솟았다는 것은 곡식이 땅에서 자라 나오는 상징이거나 지모신이 神人을 출산하는 행위이다. 그러니 三神人은 풍요의 신이며 건국시조라는 복합적 성격이라 하겠다.

三神人의 ‘地中湧出’은 탄생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穀神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穀神은 주검(地中의 埋沒)을 거친 다음에 부활한다. 그 부활은 생산의 풍요를 상징한다. 왕도 주검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해야 한다. 그래야만 王權은 풍요의 생산능력이 되며 따라서 神聖이 될 수 있다.¹⁶⁾ 三神人 즉 탐라의 國祖神은 地中の 매물과 지상으로의 용출을 보임으로써 조상신·생산신으로 숭앙되었다. 그리고 三神人을 祖上神으로 모시던 후대의 耽羅 君主들은 제의의 절차에서 ‘地中の 埋沒’과 ‘地上으로의 湧出’을 재연함으로써 왕권의 재생을 꾀하였으며 풍요의 생산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탐라국 건국시조의 ‘地中湧出’ 탄생 모티프는 탐라신화에만 보이는 특이한 것이지만 한반도 신화의 분석을 면밀하게 해 보면 그 유사성이 首露신화에서 발견되고, ‘地中の 埋沒을 거쳐 地上으로 나오는’ 곡신부활·재생재의의 의미

13)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高麗史』 卷58, 志 卷第11 地理2)

14) 김승찬, 「龜旨歌放」, 『韓國上古文學研究』, 제일문화사, 1978, p. 34. 이러한 논의는 김승찬 교수가 구지가의 ‘屈峰頂撮土’에서 한 것을 차용하여 변용한 것이다. 그는 ‘屈峰頂撮土’는 地母神이 天神을 그 腹腔에 일단 수용시킴으로써 재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고에서 나온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5) 현용준, 위의 논문, p. 84.

16) 최진원, 「동동고」,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 출판부, 1977, p. 152.

에서 살핀다면 주몽신화와 단군신화에서도 그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겠다.

3. 射矢卜地

주몽이 皇天과 后土에게 빌고 활로 강물을 쳐서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도록 한 것과, 송양과의 대결에서 활로써 승부하여 승리한 점, 이 두 화소는 주몽이 '하늘의 뜻을 묻고 활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음'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뒤의 화소는 '天孫으로서의 권능'을 인정받고 더불어 고구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이다. 耽羅신화의 '射矢卜地'의 의미를 주몽신화와 비교를 통해 살핀다면, 활을 쏘아 하늘의 뜻을 묻고 거주지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활로써 하늘의 뜻을 묻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음'이라는 의미라 여겨진다.

한편 일본의 신화를 살펴 보면 활을 쏘는 행위는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행위이며, 신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맹서의 행위로 나타난다.

Ⅲ. 渡 來

海上 渡來의 모티프는 탈해신화·수로신화·삼성신화 등에서 살필 수 있다. 현용준 교수는 현재 남아 있는 沖繩·臺灣 등지의 신화를 근거로 하여 海上 渡來 즉 箱舟漂着신화가 동남아와 한국 남부에 분포한다고 했는데,¹⁷⁾ 보다 큰 의미의 도래는 地上·海上으로의 이주민 지배세력의 도래를 말할 수 있다. 渡來의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도래의 모티프를 함께 고찰할 전기가 마련된다.

이 땅의 渡來神話는 天降神話를 전제로 한다. 천강신화의 신앙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도래인이 오면서 도래신화가 형성된다. 도래인은 鍛冶術·緋染·織造 등 선진한 문화와 기술을 토대로 하여 원주민의 추대를 받아 삼국의 건국시조가 된다. 이들 건국시조가 되는 소수 도래집단의 영웅이 天降神話의 神統譜의 天帝孫의 자리에 접합되면서 새로운 신화로 재편된 것이 이 땅의

17) 현용준, 위의 논문, p. 80.

도래신화이다.¹⁸⁾

渡來人은 철기문화·직조문화·농경문화 등의 선진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토착세력과 결합하게 된다. 首露의 妃 許王后 渡來神話는 三姓神話의 혼인과 같은 유형의 것이다. 許王后는 錦繡綾羅, 衣裳正段, 金銀珠玉 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들은 三姓神話에서 三女神이 가져 온 오곡종자 등과 같은, ‘인간생활과 국가건설에 소중한 것’¹⁹⁾인데, 織造의 선진한 문화와 기술을 가져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국의 건국신화는 이주민 세력의 남자와 토착세력의 여자가 결합한 부족연맹사회의 반영이고, 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와 탐라의 건국신화는 토착민 지배세력의 남자와 이주민 여인이 결합한 부족연맹사회의 반영이라 하겠다.

제주의 구비전승에는 三女神이 온평리의 ‘황노알’²⁰⁾에 표착하여 그들을 맞이하러 온 高·良·夫 三神人과 만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못에서 목욕하고 혼인을 하니, 이로부터 그 못을 ‘혼인지’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혼인을 한 후 못가의 굴에서 얼마 간 살게 되었다고 한다(『溫平里誌』).

渡來人인 脫解는 阿珍浦에 표착한 후 바로 두 종을 거느리고 土舍山 위에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어 7일 동안 머무르다 성내에 살만한 곳을 찾고, 호공의 집을 詭計로 빼앗아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다.²¹⁾ 여기에서 ‘作石塚留七日’의 의미는 탐라신화의 ‘굴에서 얼마 간 머무른다’는 의미와 비견된다. 즉 渡來 직후 곧 바로 거주지로 들어 가지 않고 얼마 간 굴 속에 머무는 것이다. 허왕

18) 윤철중, 「脫解神話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7, p. 88.

19) 현용준 교수는 허왕후의 고향 아유타국이 삼성신화 三女神의 고향 碧浪國과 같은 신비한 신의 나라이고, 오곡과 같은, 인간생활과 국가건설에 소중한 물질이 풍성한 神國이라는 觀想이 담겨 있다고 한다(『古代 韓國民族의 海洋 他界』, 『韓國民俗研究論文選(1)』, 일조각, 1982, p. 404).

20) 탈해는 下西知村 阿珍浦에 표착한 것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金山加利村…今云加德部 上下西知乃兒等 東村屬焉’(『삼국유사』, 혁거세왕조)에서 乃兒란 지명이 등장하고 娑蘇(仙桃聖母)가 辰韓의 奈乙村에 도착한다는 기록이 있다(『환단고기』, 고구려본기, 한뿌리, 1986, p. 361). 혁거세가 蘿井가에 있는 알에서 나왔다는 기록과 함께 고찰해 본다면 乃兒·奈乙·蘿井은 ‘늑알’의 차자표기이고, 이는 ‘신성한 물가’의 의미일 것이다. 황노알도 ‘혼노알’로 추정할 수 있고, 신성한 물가의 의미일 것이다.

21) 『三國遺事』, 紀異 卷 第2, 脫解王.

후도 도래 직후에 바로 首露의 궁으로 들어 가지 않고, 首露의 영접을 받고 함께 帷宮(帷장을 둘러 친 임시 처소)에 들어 두 날과 하루 낮을 머문 뒤 입궁한다.²²⁾

김열규 교수는 '作石塚留七日'의 의미에 대해 "石塚에 머무름으로써 '죽음과 재생'을 겪은 탈해는 이제 미성년을 벗어나 冶巫의 집에서 所定の 礪炭 찾기로써 冶巫로 就業하는 것이 아닐까"²³⁾라고 하여 석총을 入社式의 장소로 해석하였고, 입사식이 죽음과 재생을 표상하며, 그 죽음과 재생은 모의적인 매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수로와 허왕후가 遷宮과 결혼에 앞서 시흘간 석굴과 같은 의미의 장소인 유궁에서 머문다는 기록도 혼인에 앞서 입사식을 거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듯하다. 온평리 구비전승에서 나타나는 '굴에서 얼마 간 머무른다'는 것도 入社式을 거친 뒤 三神人과 三女神이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상정할 수는 있지만, 문맥상 혼인 후 굴에 드는 것으로 보아 굴에 드는 행위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神聖性을 획득하여 새로 태어나는 부활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탈해신화·단군신화 등의 신화적 문맥에 자주 등장하고 온평리의 구비전승에 나타나는 '入窟의 모티프'는 문헌으로 전승되는 三姓신화에서는 잊혀진 부분이라 하겠는데, 삼성신화에 이 '入窟의 모티프'를 보태어 본래의 신화적 문맥을 再構할 수 있으리라 본다.

IV. 穀 母

1. 三女神의 穀母神의 성격

神母神話는 우리의 건국신화와 함께 전승되는 것인데, 仙桃山神母·雲梯山聖母·正見母主·智異山聖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神母 혹은 聖母는 각각 신라·가야·고려의 始祖母 또는 王妃들로 神聖性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神母는 농경적 地神의 성격을 갖는데, 여성의 生殖機能을 신격화하여 농

22) 上出迎之 同入帷宮…兩過清宵 一經白晝(『三國遺事』, 紀異 卷 第2, 鰲洛國記)

23) 김열규,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일조각, 1971, p. 110.

경의 풍요를 기원한 地母의 의례의 배경을 가진다.²⁴⁾

주몽의 母 柳花는 주몽과 함께 국가 수호신으로 숭앙받았는데 그 이유는 건국 시조를 낳았다는 사실과 주몽에게 五穀種子를 전해주었다는 행위와 관련된다. 탐라신화의 三女神은 渡來時 오곡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아, 생산을 주관하는 穀母神의 성격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三女神도 신라의 선도성모나 고구려의 柳花처럼 '神母' 혹은 '聖母'로 숭앙되었을 것이다.

2. 문화사적 의의

땅에서 솟아난 三乙那는 궁벽한 곳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皮衣肉食). 그 후 三女神이 가져 온 오곡종자를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는 사회·경제사적 발전 단계로 해석될 만하다.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통사』의 고대문학 '건국신화'항에서 종래의 문학사에서 언급하지 않던 탐라 건국신화를 삼국의 건국신화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高·良·夫 三神이 수렵생활을 했는데 三女神이 오곡종자를 가져오는 때를 기점으로 농사와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사회발전이 늦었음은 신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²⁵⁾고 했다. 그러나 이 신화를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발전하는 사회경제사적 변화로 본다 하더라도, 三姓神話에 반영된 사회상은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의 건국시기의 사회상에 크게 뒤질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 시대가 수렵생활만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니, 책에 씌어 있는 것처럼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즉 '오로지' 수렵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수렵이 너무나 불확실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²⁶⁾ 그러므로 토착 부족과 도래 부족의 결합으로 이 신화

24) 金用淑, 「韓國女俗史」, 『韓國文化史大系』4,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p. 533~534.

2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82, p. 80.

26) 프리드리히, 「가족의 기원」, 아침, 1985, pp. 26~27.

三姓神話의 神話學的 考察

를 이해한다면, 기존의 것보다 고급인 문화를 받아 들였다는 三國과 가야의 신화와 크게 다른 문면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주몽에게 유화가 오곡종자를 보내주었다는 신화는 유화의 곡모신적 성격을 보여 주는 문면이라 할 때, 三姓神話에서 三女神이 오곡종자를 가져왔다는 기록은 三女神이 유화와 같은 곡모신적 성격을 갖는다는 신화상의 문맥으로 이해해야 옳을 줄 안다. 그렇다면 삼국의 건국신화와 同一 차원에서 三姓神話를 논하는 것이 신화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다.

V. 結

제주의 三姓神話는 그 위치상 九州·沖繩·臺灣 등 남방계 신화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면도 부인하지 못한다. 또한 제주의 풍토적 조건이나 문화적 독자성에 의해 독특한 구조를 띠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의 역사와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 한반도의 총체적 변화와 긴밀하게 작용하였듯이 제주의 신화도 삼국의 건국신화와 그 문화적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삼국의 건국신화가 탐라신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삼국의 건국신화가 탐라 건국신화에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原流로서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탐라의 건국신화가 그간 풀 수 없었던 우리 신화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고는 北方 삼국과 가야의 신화를 탐라신화와 함께 비교·고찰하였는데, 三姓神話의 南方系 문화 영향론과 독자적 문화 배경론을 보완하는 길이길 바란다. 그리고 박혁거세 신화가 신라 건국신화이듯이 三姓神話가 자연스럽게 耽羅 建國神話로 명명되기를 기대한다.